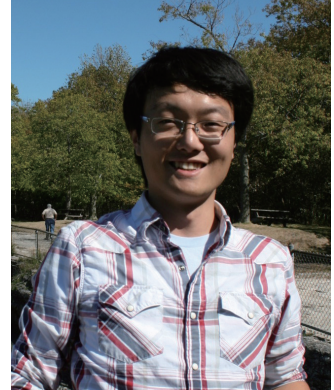


## 새로운 배움의 터, KIAS

● 글\_정성훈·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연구원



제가 University of Michigan으로 유학을 가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게 된 것은 대학원을 선택할 때 KIAS 고병원 교수님 외 여러 분들께서 해주신 조언의 덕이 컸습니다. 그리고 박사과정 중에 안식년을 보내시던 전용진 교수님을 만났고, 그 인연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KIAS를 방문하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. 제 연구를 소개하고 소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, 무엇보다도 KIAS에서 훌륭한 교수님, 박사님들과 같이 연구할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박사과정이 끝나고 병역특례 시기로 고민하고 있을 때, KIAS의 배려로 University of Chicago에서 포닥으로 연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.

이런 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KIAS 연구원 생활은 솔직히 기대 반, 우려 반이었습니다. 먼저 기대가 컸던 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 반면, KIAS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제가 잘 융화될 수 있을지, 그리고 행여나 익숙한 한국에 돌아오면 6여 년간 외국 생활을 하며 얻었던 긴장감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.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연구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흥미진진한 연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

사실 긴장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. 외국생활의 긴장감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저의 연구안목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, 낯선 환경과 수많은 외국학자들 틈에서 서툰 영어로 하나라도 더 생각하고, 하나라도 더 잘해보려는 치열함에 지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KIAS에서 연구를 막 시작하던 저에게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. “내가 KIAS에서 연구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던 때가 그리워요. 내 연구의 전성기였어요.”, “조용할 수 있는 KIAS지만,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지하게 깊이 있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 지금의 내 연구의 바탕이기도 해요.”, “나는 KIAS에서 나의 가장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.” 모두들 치열함과 진지함을 잊지 말기를 당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이 소중한 조언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

그동안 얻고 배운 KIAS의 배려와 주변 분들의 관심으로 얻을 수 있었던 연구 경험은 이제 제가 KIAS에서 더 큰 배움을 추구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연구해 온 연구 주제들과 이곳 연구원 분들의 열정과 지식들을 접목시켜, 함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배워나가고자 합니다. 이곳의 좋은 환경에서,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연구진들과 열심히 고민하며 배워나가겠습니다.